

10. 제2의 추사문화(秋史文化)가 일어났으면⁴⁷⁾

추사 김정희의 일생에서 제주도 유배생활 9년을 마이너스한다면 어떻게 될까.

추사는 제주도에 유배되기 이전에 이미 이름이 나 있었던 사람이다. 서예는 여러 서체를 익히고 나서 대가가 돼 있었다. 그는 20대에 연행(燕行)을 따라가 중국의 이름난 비학과(碑學派) 학자들과 사귀었고 30대에는 북한산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를 고증할 정도의 고명한 금석학자가 돼 있었다.

그가 윤상도옥사(尹商度獄事)에 말려들어 생사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추사를 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온 조야에 일어났다. 그만큼 그는 세

47) 『한라일보』(삼각봉), 2006. 11. 16 (목), 제주문화원장.

상의 아낌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제주도 유배생활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사는 이름 있는 서예가로 또 학자로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추사만이 지닌 진가, 추사만이 지녔던 남다른 예술은 보여 줄 수 없었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가 유배 중 가족이나 친족들과 나눈 서간을 보면 음식에 관한 애기가 적잖게 등장한다. 집에서는 모처럼 정성 들여 찬거리를 만들어 보내지만 그것은 거의 변질되어 버리게 된다. 그는 귀한 가문에서 자라서 그런지 식성이 몹시 까다롭고 환경적응에도 몹시 취약한 체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모질고 메마른 땅 제주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여간한 인내력이 아니고는 견뎌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역경의 세상을 알게 되었고 생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상이 바뀌고 새로운 예술이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주도 유배 후 그의 사상이나 예술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박규수(朴珪壽)는 제주유배 뒤의 추사체(秋史體)를 놓고 “사나운 파도가 밀려오고 벽찬 기(氣)가 솟아나고 신(神)이 튀어 나오는 글체”라고 하였다.

올해(2006년)는 추사가 간지 150주년을 맞는 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달부터 ‘추사 서거 150주기 기념전’을 열고 3차에 걸친 특별강연회를 열고 있다. 추사가 말년에 살았던 경기도 과천에서도 지난 7일 ‘다시 읽는 추사의 학문과 예술’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유배지 제주에서도 지난 10일부터 이달 말에 걸쳐 도민속자연사박

물관과 추사관에서 ‘추사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고 초청강연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베풀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추사문화의 창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추사적거지가 정비되고 추사관이 생겨난 지가 오래지만 추사 진품 하나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뜻밖에 유홍준 문화재청장, 부국문화재단(이사장 남상규), 추사동호회(대표 조재진) 등의 100여점에 이르는 귀중한 추사유품들을 기증받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갑기 짝이 없다.

추사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추사를 조선시대 최고의 정신문화의 창출자로 보는 경향이 많다. 이제부터는 좀 정신문화개발에도 눈을 돌렸으면 한다. 추사가 제주도에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 냈듯이 제2의 추사문화가 다시 제주도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한다.